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고길란 · 이영숙*

서해대학 케어복지학과 · 군산대학교생활과학부

GilRan Ko · YeongSug Yi*

School of Human Ecology · Kunsan Nat'l Univ.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death, the level of death anxiety, and the aspect of death anxiety that the aged have. For this, a quantitative research subjecting 532 of the aged living in local area, Jeollabuk-do was carried out. And among those 532 questionnaires, 10 were subjected for depth interview.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 from this study.

First, the meaning of death for the aged is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s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meaning. Among these, there were far greater numbers of the aged who put neutral or negative meanings on their death than the positive one.

Second, death anxiety of the aged are divided into three factors: 'annihilation anxiety', 'process anxiety', and 'afterdeath anxiety'. The factor that involves death anxiety the most was process anxiety, then afterdeath anxiety, and annihilation anxiety, in the order.

Third,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feature of death anxiety in the aged into the symptoms of death anxiety and the motive of recognizing death anxiety. Death anxiety is classified into the people with symptoms and those without symptoms, and those with certain symptoms are classified into the physical symptoms and the mental symptoms. The motive of recognizing death anxiety appeared when the individual is aged, experiences the death of other people, suffers physical pains, and when there is a mental loneliness.

Key Words : death anxiety, the meaning of death, the level of death anxiety, the aspect of death anxiety

I. 문제의 제기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실은 불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불안이 따르는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은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회피는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충격과 함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한다(김태현, 1994). 죽음에 대한 연구

는 이런 의미에서도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가정되는 노인들 즉, 죽음에 임박한 암 및 각종 만성 질환자들과나 평안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간호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후 죽음의 태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에 관한 교육적 논의가 되고 있다(유희옥, 2004). 그러나 실제로 가장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을 접하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에 대한 주제를 연구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인의 죽음이란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수용과정, 그리고 노인 임종환자 등에 관

* Corresponding author: Yeong-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9-4620
E-mail: ysyi@kunsan.ac.kr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죽음은 삶을 삶답게 가꾸는데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활용되므로 (조명옥, 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 필요하다. Erikson은 노년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 하여 자아통합에 이르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를 처리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하였다(홍숙자, 2001). 이를 위해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거나 주위사람들에게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잘못된 인식 등을 상대적으로 커지게 하기도(심민경, 2001)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안이나 공포는 어떤 연령에서나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White & Handal, 1990-1991)를 보더라도 죽음을 가까이에 둔 인생후반기에 죽음불안을 높이지 않는 방안을 위해 필수적이다.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크게 수용과 거부라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만약 노인이 죽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노년기 삶 전체가 불안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전영기, 2000).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07년 현재 노인은 전체 인구의 9.1 %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백서, 2006). 따라서 죽음을 가까이에 둔 노인이 죽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체험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죽음불안 정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노인들의 죽음의 의미와 불안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이는 죽음불안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할 기초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노인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문제2.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와 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죽음의 개념과 의미

죽음이란 무엇일까?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죽음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죽음(death)은 살아있는 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어가는 과정(dying)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때 '죽어가는 과정(dying)'이란 광의로는 출생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삶의 과정 전체와 동일한 과정으로서, 관찰 가능한 과정이며, 죽어가는 개인은 물론 주변의 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놓여 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중에서는 광의의 정의보다는 협의의 정의가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죽음은 유기체가 생존능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이 종결되어 죽은 상태로 전환되는 전이과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전영기, 2000).

죽음에 대한 개념이 객관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마다 다르다. 죽음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조명옥, 1997) 죽음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이동훈, 2005). 첫째, 죽음은 시간의 제약 또는 종말이다. 둘째, 죽음은 현재에서의 존재의 소멸이다. 셋째, 죽음은 삶의 연장, 즉 또 다른 새로운 세계나 윤회, 환생, 영생을 의미한다. 넷째, 죽음은 삶의 경험, 가족 등과 같은 소중한 것의 상실이다. 다섯째, 죽음은 형벌이다. 여섯째, 죽음은 힘든 삶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쉽다. 일곱째, 죽음은 섬뜩한 상(macabre) 또는 부드러운 성령(gentle comforter), 유쾌한 사기꾼(gat deceiver)이다. 여덟째, 죽음을 통하여 차별성이 극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며,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결합을 가져다준다. 아홉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일 사회 내에서도 죽음에 대한 의미는 연령이나 건강, 개인의 가치관 및 철학, 개인적 성격 및 상황, 종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를 이지영(2004)은 '삶의 소멸', '삶으로부터의 해방', '삶의 연장' 으로 구분하면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죽음의 의미를 인식한 노인들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죽음을 삶의 소멸로 인식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인데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

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죽음을 삶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식한 대상은 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 자신들의 현재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죽음을 탈출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인식한 대상은 종교적 경향성이 강하거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가진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죽음에 초월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삶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자아정체감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이예중, 2005).

2. 노인의 죽음불안

죽음 불안(death anxiety)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혐오, 기피, 수용, 부정, 분노 등으로 정의되지만(서혜경, 1987), 좁은 의미에서는 존재의 정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과는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죽음 불안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 혐오감, 파멸감, 거부, 부정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되어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점점 노인에게로 한정되어 가는 경향이다.

죽음불안은 특히 여생을 얼마 남기지 않은 노인에게 있어서는 신체 기능의 저하와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된다(Hickson, Housley & Boyle, 1988). 질환으로 인한 거동의 부자유와 기능 상실, 신체적 고통 등은 가족에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것이 높아질수록 비관, 우울 등의 정서 장애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병적인 죽음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접함으로써 비애, 긴장, 불안은 더욱 심화된다(최신덕, 1985재인용).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도 아니다. 노인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죽음이 노인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인이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보편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즉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 죽음의 의미를 직시함으로써 죽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영기, 2000). 또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연구한 Peak(1977)도 노인의 죽음에 대한 반

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죽음이 노인에게 불안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죽음은 나이들어 맞이하는 것으로 보며,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둘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여 지나친 부정으로 질병이나 무능력해져 죽음이 빨리 온다. 셋째,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매우 불안하여 자신을 사회적으로 죽은 것으로 인식하여 자포자기 한다(이동훈, 2005재인용).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결과(노현정 외 3명, 2006)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노인 중 45%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23%가 죽음을 수용한다고 반응하며 21%만이 두렵다 라는 반응을 보여 이러한 점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불안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죽음불안을 Michael(1979)은 임종, 존재여부, 사후결과, 그리고 타인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서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사회로부터의 격리, 소외,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 의식과 자제력의 상실, 타인에게 의존, 버림받는데 대한 공포이며, 둘째는 존재여부에 대한 불안으로 자아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다. 셋째는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이며 이는 개인이 처리하지 못한 계획, 사업, 재산에 대한 염려, 사후의 정벌, 사후세계에 대한 미지의 불안이다. 넷째는 타인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임종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을 야기 시킨다고 보는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심민정, 2001).

여기에 덧붙여 Thorson & Powell(1992)은 사물의 부재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죽음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공포, 후생에 대한 염려, 부패에 대한 공포, 사후 행해질 일에 관한 지시에 대한 염려로 죽음불안을 설명하고 있다(이예중, 200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박은경(1995)은 죽음불안에 대한 요인을 7가지로 분류했는데, 죽음의 의미, 고통, 타인에 대한 염려, 사후의 불확실성, 모든 면에 있어서의 능력상실, 부존재, 죽음의 장소 및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오미나(2002)는 죽음불안을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 3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공포와 혐오 등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Kalish(1976)가 지적한대로 노인들이 죽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alish는 노인들

은 자기의 생명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가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은 자신이 충분히 살았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타인의 죽음과 많은 연관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경험 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도록 돕기 때문에 (김대복, 1992) 죽음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옳게 지각하는 것이 인생의 노년기에 대한 마지막 준비를 하여 나머지 인생을 불안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전북 K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16일-8월 27일까지 면접조사를 하였다. 노인 스스로 설문지를 이해하여 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기재 방법으로,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면접을 통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92부를 배부하여 560부를 회수하여 이 중 532부(남 198명, 여 334명)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10명의 노인을 선정하여 2-3회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냈거나 가까운 친지로부터 소개받은 노인들로, 설문지 조사에 참여했던 노인 중에서 흔쾌히 허락하는 분만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전 과정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사하여 내용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도구는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박은경(1995)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발한 질문 중 대상이 노인이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일부문항을 연구자가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Cronbach's $\alpha=.87$).

3. 자료 분석

조사결과는 SPSS/PC+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심층면접 자료는 녹음한 내용을 전사한 뒤 내용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노인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

노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한 결과, 죽음의 의미는 긍정적 의미, 중립적 의미, 그리고 부정적 의미 등 셋으로 분류되었다.

1)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

죽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죽음은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며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면접 노인	성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정도	동거형태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종교 생활
사례1	남	73세	유배우	고졸	부부와미혼아들	중하	양호	기독교
사례2	여	84세	11년전사별	무학	장남가족과손자녀	상	거동불편	기독교
사례3	여	82세	10년전사별	초졸	혼자지냄	중하	양호	기독교
사례4	여	82세	16년전사별	무학	차남가족과 손자녀	중하	거동불편	기독교
사례5	여	79세	30년전사별	초졸	혼자지냄	중상	양호	기독교
사례6	여	78세	3년전사별	무학	미혼아들과둘이서	중하	거동불편	기독교
사례7	여	76세	19년전사별	무학	혼자지냄	중	양호	무교
사례8	여	74세	3년전사별	초졸	딸의가족과손자녀	중	양호	무교
사례9	여	74세	14년전사별	무학	장남가족과손자녀	하	양호	기독교
사례10	여	67세	유배우	초졸	노부모님과 미혼자녀들	중상	양호	기독교

러한 노인은 조사대상 중 단 한 명뿐이었는데(사례 1), 죽음은 그저 자연현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뜻에 맡기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저녁이라도 죽을 수도 있잖어.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70~80 살다가 가는 것이라 말이지, 또한 인생은 공수레 공수거라고 했어.” ... (사례1)

사례 1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 죽음이 억울하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 없는 노인으로, 죽음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에 따라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2) 죽음에 대한 중립적 의미

죽음에 대해 긍정적 의미도, 부정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노인들은 죽음을 지극히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연적 소멸로 인한 생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 4, 5, 7은 세 분 모두 남편과 오래전에 사별한 상태에 있는 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상실감이나 불안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볼 때,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노인들은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죽음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아...” (사례4)

“나도 갈 때가 가깝구나하고...(중략) 80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 (사례5)

“죽음이 뭐냐 하면 죽음은 뭐가 있어? 사람 인생 생겨나서 살다 가는 게 죽음이지. 사람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이니까.” ... (사례 7)

이처럼, 죽음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노인들은 주위의 잦은 죽음경험과 홀로 지내는데 익숙해진 환경, 또는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음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무덤덤하게 학습되어진 결과로 얻어진 태도라고 보여진다.

3)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의미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며, 힘들게 살아온 삶이 억울하며, 그리하여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사례 7은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허망하다고 진술하여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죽음불안이 오면, 앉아서 사람 인생이 그렇게 허망 하구나 한탄도 하다가 자고, 누구라도 와서 이야기하다보면 잊어버리지. 사람이 가는 것이 허망하구나.... (사례7)

사례 9는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와 사회적으로 역할을 상실하여, 자신이 정상적인 사회의 성원으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면 죽음이 억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번에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할 때 죽는 거 생각이 나더라고. 외롭고 힘들고 죽겠더라고...아플때, 그때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가보다 했어. 한숨만 나고, 억울하게 주저앉아버릴 것만 같고...” (사례9)

죽음은 힘든 삶에서의 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사례 7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나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으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허망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라 여겨진다. 사례9의 의미는 죽음이란 생각도 않다가 어느 날 건강에 변화가 왔을 때 당황스럽지만, 이미 나빠진 건강이 스스로 관리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력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질병이 악화될 경우, 고통과 두려움으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죽음을 또 다른 삶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다리가 아프기 전까지 식당이며,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신 사례 9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인식하며, 죽음을 이 세상 다음에 무엇인가 있는 재생하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죽으면 화장은 못하게 했어. 썩어 없어질 육신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게....” (사례9)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말했던 사례 7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음을 소멸 즉, 끝이라고 하였다. 죽음을 둘러싼 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 하면서 죽음은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죽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겁난다’ ‘두렵다’라는 표현을 사용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나도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안 좋
지.” ... (사례2)

“죽음..생각하면, 나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지, 두려울
때가....” (사례10)

노인들은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
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노인은 1명이고, 중립적인 의미
를 부여한 노인은 3명,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노인은 6명으
로 가장 많았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노인의 세계관에 근거하며 이는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되
어왔으며(조명옥, 1997), 따라서 각자의 연령이나 건강, 개
인의 가치관 및 철학, 개인적 성격 및 상황, 종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이동훈, 2005; 이지영, 2004)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노인의 죽음불안

1) 노인의 죽음불안 유형

노인이 지각하는 죽음불안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되

어 있는지 밝히기 위해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1.24%를 설명하고 있는
데 이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7문항이 노인이 지각하는 죽
음에 대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정불안”으로
명명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죽음과정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것도 두렵다’, ‘제때 못 죽고 남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죽음에 압박해서 내 모습이 초라
해지는 것이 두렵다’ 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63% 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들 문항은 노인이 죽음으로 인한 존재
에 대한 소멸로 “소멸불안”이라고 명명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화장은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승에서 내가 해왔던 것이 없어지므로 죽음이 두렵다’
‘죽기 직전 숨이 막히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전체변량의 13.11%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들 문항은
노인의 죽음 뒤에 일어나게 되는 사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사후불안”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사
랑하는 모든 사람을 못 보는 게 제일 겁이 난다’, ‘내가 하
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
에 두렵다’, ‘내가 책임질 사람들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
두렵다’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죽음불안에 대한 하위요
인을 죽음과정, 존재상실, 사후결과로 분류한 오미나

<표 2> 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요인분석

죽음불안 내용	요인1 과정불안	요인2 소멸불안	요인3 사후불안
제 때 못 죽고 남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81	.02	.18
죽음 과정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것도 두렵다	.75	.05	.20
이승에 잘못된 업보가 내세에서 나타날까봐, 잘 정리하고 맞고 싶다	.69	.19	.12
제때 못 죽을 경우 자식이 먼저 죽을까 두렵다	.69	.17	.05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정을 보는 것이 두렵다	.53	.38	.21
만일 화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즉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53	.08	.16
죽음에 압박해서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이 두렵다	.52	.36	.26
이승에서 내가 해왔던 것이 없어지므로 죽음이 두렵다	.12	.79	.15
화장은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	.11	.71	.02
죽기 직전 숨이 막히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	.31	.69	.05
매장은 어두컴컴한 곳에 갇히는 느낌이라서 싫다	.12	.67	.06
죽은 후 내 육체가 주변사람들(주로 가족들)에게 보여 지고 그것을 옮기고 묻거나 재로 뿌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끔찍하다	.17	.64	.33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 슬프다	.00	.60	.28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못 보는 게 제일 겁이 난다	.17	.14	.79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	.27	.18	.73
내가 책임질 사람들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 두렵다	.25	.19	.69
Eigenvalue	3.39	3.31	2.09
누가변량(%)	21.24	41.87	54.99

(2002)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고통스러운 과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자체보다 죽어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결과(Morse, 1998)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박은경(1995)은 죽음불안에 대한 요인을 죽음의 의미, 고립, 타인에 대한 염려, 사후의 불확실성, 모든 면에 있어서의 능력상실, 부존재, 죽음의 장소 및 방법 등 7가지로 분류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2)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

노인이 인지하는 유형별 죽음불안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죽음불안이 상당함(5점 만점에 3.12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은실, 2004; 이예중, 2005; 최소영, 2006; 장호익, 2007)와 유사하여 노인들이 가지는 죽음불안 정도가 보통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불안을 유형별로 보면, 소멸불안 평균이 2.72점, 사후불안 평균이 3.12점, 과정불안 평균이 3.44점으로, 소멸불안이나 사후불안에 대한 불안보다 과정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정불안이 높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오미나, 2002; 김은진, 2007)도 유사하여 노인들이 죽음과정에 가장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면접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보다는 하루나 이틀 누워서 임종을 맞기를 소원한다고 하며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불안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표 3> 노인의 유형별 죽음불안 정도 N=532

죽음불안	M	SD
소멸불안	2.72	.79
과정불안	3.44	.75
사후불안	3.12	.86
죽음불안 총점	3.12	.64

"소원이 있다면 저녁 잘 먹고 갈 때 편히 가는 것이 좋지." ... (사례2)

"이대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잠자는 듯 갔으면 좋겠어. 아직은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아. 자다가 이대로 잠자는 것처럼 갔으면 좋겠다~~이 생각 뿐이야." ... (사례7)

"어느 날 갑자기 갔으면 하는 소망이다. 마음대로 꼭 될 것 같으면 하루나 이틀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이라도 짧고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중략) 많이 고생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때는 무섭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하면 좋아 보이고. 내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가졌을 때 아파서 누웠다, 못 고칠 병이다, 하면 오래 살려고 애탈 것은 없을 거 같아." ... (사례8)

소멸에 대한 불안도 여러 노인들(사례 2, 4, 7, 9)에게서 나타났는데,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소멸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호소하였다.

"내가 어느 날 숨이 맥히니까 옆방에 있던 자식들이 쫓아왔어. 한참있다가 내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좀 늦춰 주실래요? 내가 그랬다니까." ... (사례4)

"나 죽으면 화장은 못하게 했어.(중략)색이 없어질 육신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게." ... (사례9)

노인들이 사후에 대한 불안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자녀와 관련된 불안을 표현하여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죽으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그것이 불안으로 남는 것이다.

"내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는 자식들 힘피고 사는 것 이것만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어.(중략) 오늘 죽어도 아내 건강하고 막내 결혼시키고 죽는다면야~" ... (사례1)

심층면접한 노인들의 표현을 통해 죽음불안을 한 노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한 유형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례2와 사례9는 과정불안과 소멸불안을 함께 느끼고 있었고, 사례7은 과정불안, 소멸불안, 사후불안 모두에서 죽음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의 죽음불안 양상

앞에서 노인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가 긍정적 의미, 중립적 의미, 그리고 부정적 의미로 분류됨을 볼 수 있다. 그 중 중립적, 부정적의미를 가진 노인을 중심으로 불안 증상과 불안을 인식하게 된 계기를 질문하여 죽음불안 양상을 파악해 보았다.

1) 죽음불안 증상

진실로 죽음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 증상이 없으며(사례 1), 중립적 의미나 부정적 의미

를 부여하는 노인들은 모두 불안 증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다.

(1) 증상없음

죽음에 대한 불안증상은 심리적으로 나타나거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례1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일한 남자노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불안 증상이 없는 초연함을 보였다.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 억울하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 없어...(중략) 죽음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증상은 없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하나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 (사례1)

이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불안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 극복하려는 성숙함에서 나오는 증상이었다. 이는 죽음을 가장하거나 포장함으로서 죽음에 가식적으로 임하려함이 아니며 깨달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독실한 종교생활로부터 나오는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경향으로 보였으며, 죽음이 현재 삶의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확신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2) 증상 있음

① 심리적 증상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낙심이 되고, 한심하고, 서럽고, 슬프고, 외롭다는 심리적인 증상들을 토로하고 있었다.

“막 낙심이 되고 힘이 없고만 사람이... 나도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나고.”... (사례2)

“(죽음을 생각하면...)한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사례3)

② 신체적 증상

죽음에 대한 불안 증상으로 심리적인 증상 외에도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8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집에 앉아있으면 자꾸 더 몸이 가라앉고 더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생명이 나.” ... (사례8)

2) 죽음불안 인식계기

노인들이 죽음 불안을 느끼는 때는 어떤 계기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 본 결과, 나이 들, 타인의 죽음경험, 신체적 고통, 심리적 외로움 등이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 나이가 들어갈 때

사례 3, 8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 불안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늙어가는 것과 죽음을 동시에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이를 먹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뭔가, 누가 나를 거시기(무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재밌게 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될 때도 있어. 그것이 뜻대로 안되잖아...” (사례8)

“젊었을 때는 그 사람 살다가 죽었는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갈 날이 되면(중략) 우리 인생도 얼마 안 남았다~. (중략)해가 뜨는 해는 좋은데, 해가 지면 내 마음부터 기울어져...” (사례3)

(2)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변에서 친구와 동료들의 죽음이 나, 가까운 친지들의 죽음을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죽음을 불안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신은영·유시순, 2005)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친구가 죽었다카나 아는 사람이 죽었다카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우리 인생도 얼마 안 남았다~.”... (사례3)

“나도 갈 때가 가깝구나하고 남 일인가 싶지를 않고, 한심스럽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가고, 나도 저 사람처럼 갈 날이 가깝다.” ... (사례5)

주변의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노인에게는 자신들의 일상을 정리하는 순간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덜 힘들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3) 자신의 몸이 아플 때

나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죽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체적 질병이 심해지거나 갑작스런 고통이나 장애가 발생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된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죽음불안을 느끼는 노인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Tagaya et al., 2000)와 유사하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까딱하면 날만 지면 죽을라나? 그런 마음이 생겨..."치매까지 걸린 정신이 너무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못 참겠고...텔레비서 7일 만에 발견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나...".... (사례3)

"그럼~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들지. 몸이 괴로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들지.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잘자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잠이 깨어질라나 모르겠다." ... (사례5)

(4) 심리적으로 외로울 때

외롭거나 고독하다거나 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나 고독이 죽음불안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있으니까..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잘자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잠이 깨어질라나 하는 두려움이 있지. TV서 몇 일만에 발견했다더라 하면 그것도 내 일인가보다 이렇게 생각 되잖아." ... (사례5)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떨 때? 특히 외롭게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떠올라. 그럴 때는 눈물도 나올 때도 있지." ... (사례7)

죽음불안 인식계기를 나이 들, 타인의 죽음경험, 신체적 고통, 심리적 외로움이라고 밝힌 본 결과는 조명옥(1997)이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중 주변 사람들의 죽음 등을 통해 체험한다고 밝힌 바와 일맥상통한다. 즉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죽음불안은 특히 여생을 얼마 남기지 않은 노인에게 있어서는 신체 기능의 저하와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된다(Tagaya et al., 2000)는 결과와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죽음과 관련된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와 중립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부

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긍정적 의미를 가진 사람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5점 만점에 3.12점을 나타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죽음이라는 현상은 극히 일부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즉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위해 바람직하다할 지라도 실제 노인이 인식하는 죽음은 삶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이 가진 죽음불안 요인은 소멸불안, 과정불안, 사후불안 등 3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과정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 고통, 경제적 부담감, 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특히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죽음과정에서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죽음불안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완화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면 마음속 깊이 진실로 죽음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 증상이 없으며, 중립적 의미나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인들은 불안 증상을 나타냈다. 이를 보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죽음에 대한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음불안을 느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죽음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찍부터 준비시키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죽음불안을 인식하게 된 계기를 보면 나이들, 타인의 죽음, 신체적 고통, 심리적 외로움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외로움 등 일부는 주위 사람의 보살핌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음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주위에서 보살피줄 방안을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와 양상은 노인 개인에 따른 차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층면접에 의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의미와 죽음불안 양상 등을 살펴보았으나 조사대상자들이 여자노인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남자노인이 가진 특성을 밝히기에는 제한적이며 성별 차이점도 심

도 깊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노인의 성도 포함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불안을 조사하였으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아동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변화해가는 양상을 알고 죽음불안이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죽음불안, 죽음의미, 죽음불안정도, 죽음불안양상

참 고 문 헌

- 김귀분(1978).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복(1992).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죽음의 불안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2002).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2004).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7). 입원노인의 죽음불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노현정, 조은영, 전경숙, 전태연(2006). 한국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2006 한국심리학회 포스터발표논문, 294-295.
- 박은경(1995). 죽음불안 측정 도구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1990). 입원한 노인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서혜경(1987).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 7권 39-61.
- 신은영 유시순(2005). 노인의 건강신념에 따른 죽음불안. 노인복지연구 29(가을), 309-330.
- 심민경(2001).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미나(2002).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가족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유희옥(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동훈(2005). 노인의 죽음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종(2005). 노인의 죽음 준비인식과 죽음불안에 관한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이가옥(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제24권 2호. 193-215.
- 장호익(2007). 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 정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기(2000).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옥(1997).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 사례 연구. 한국노년학 17(3), 1-35.
- 최소영(2006). 노인의 죽음 준비정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신덕(1985). 노년사회학. 경문사.
- 홍숙자(2001). 노년학개론. 하우.
- Michael, A.S.(1979). *Dying: facing the facts-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ying*.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Morse, D.R.(1998). Confronting existential anxiety: The ultimate stressor. *Stress Medicine* 14, 109-119.
- Tagaya, A., Okuno, S., Tamora, M., & Davis, A.J. (2000). Social support and end-of-life issues for small town Japanese elderly. *Nursing and Health Sciences* 2(3), 131-137.
- White & Handal(1990-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mental health/distress. 장휘숙(2000).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 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1). 127-143에서 재인용.

(2008. 6. 4 접수; 2008. 8. 2 채택)